

삶의 벼랑에 선 이웃에 매월 '사랑의 손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이웃돕기 프로젝트' 시작

영암 희귀난치질환 이순애씨 부부 첫 사례 선정

이순애(여·57·영암군)씨는 간과 신장에서 수만 개의 물혹이 자라는 희귀 난치 질환자다. 그녀의 배는 마치 임신한 것처럼 부풀어 올라 2달에 한차례 서울 삼성의 료원까지 찾아가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 또 신장 투석도 일주일에 3차례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씨는 자신의 몸도 돌보기 힘든 상황이지만 남편이 더 걱정이다.

이씨의 남편 김중환(61)씨는 5년 전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당시 사고로 경추가 망가져 주변의 도움 없이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5년간 끌어오던 교통사고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보험회사는 최근까지 들어간 치료비 6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깎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이씨의 작은 집은 지인의 채무보증 3000만원 때문에 은행에 압류된 상황이다. 또 1남2녀의 자녀

중 둘째 딸(37)에게 같은 병이 유전돼 부모로서는 미안한 마음뿐이다.

두 달 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지만 장애수당을 더해 두 부부의 한 달 생활비는 86만원 남짓. 이씨와 남편의 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살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말하곤 한다.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가 이씨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위해 이달부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 프로젝트는 매달 한차례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을 선정할 뒤, 안타까운 사연을 알리고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사랑의 리퀘스트' 프로그램이다. 이달 초 프란치스코 교황이 내년을 '자비의 회년'으로 선포한 게 계기가 됐다. 교황은 "세상 모든 곳에서 자비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기 프로젝트' 첫 수혜자로 선정된 김중환·이순애씨 부부.

록 모든 교구에서 '자비의 문'을 열어두라"고 권고했다.

이달에는 영암군에서 희귀 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이씨 가족이 선정됐다.

대상자는 매달 광주·전남지역 천주교 광주대교구 소속의 성당 140여곳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다. 꼭 천주교 신자가 아닐지라도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라면 누구나 추천하거나 추천받을 수 있다.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관계자는 "작은

나눔의 손길을 모아 희망찬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특별히 기억하고 함께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어려운 사례를 소개하고, 또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기 프로젝트'에 후원을 희망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추천하고 싶은 이들은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로 문의(062-510-2884) 하면 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7 해질 17:24
 일출 14:59 일몰 03:44

호린하늘
 가끔 구름이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은뒤 흐림 2/12 보성 맑은뒤 흐림 -1/11
 목포 맑은뒤 흐림 2/11 순천 맑은뒤 흐림 4/13
 여수 맑은뒤 흐림 7/11 영광 맑은뒤 흐림 0/10
 나주 맑은뒤 흐림 -1/12 진도 맑은뒤 흐림 1/11
 완도 맑은뒤 흐림 3/11 진주 맑은뒤 흐림 0/11
 구례 맑은뒤 흐림 -1/12 군산 맑은뒤 흐림 1/9
 강진 맑은뒤 흐림 0/11 남원 맑은뒤 흐림 1/10
 해남 맑은뒤 흐림 -1/12 흑산도 맑은뒤 흐림 7/9
 장성 맑은뒤 흐림 -1/11

◇바다 날씨

| | | 오전 | 파고(m) | 오후 | 파고(m) |
|----|--------|------|---------|------|---------|
| 서해 | 앞바다 | 북~북동 | 0.5 | 북동~동 | 0.5 |
| 남부 | 면바다 | 북~북동 | 0.5~1.0 | 북동~동 | 0.5~1.5 |
| 남해 | 앞바다 | 북~북동 | 0.5~1.0 | 북동~동 | 0.5~1.0 |
| 서부 | 면바다(동) | 북~북동 | 1.0~1.5 | 북동~동 | 1.0~1.5 |
| | 면바다(서) | 북~북동 | 1.0~1.5 | 북동~동 | 1.0~1.5 |

◇생활지수
 체감온도 관심
 동파 낮음
 뇌졸중 높음

◇물때

| 목포 | 밀물 | 썰물 |
|----|-------|-------|
| | 11:28 | 04:13 |
| | 23:39 | 16:57 |
| 여수 | 밀물 | 썰물 |
| | 06:36 | 00:00 |
| | 18:50 | 12:38 |

◇주간 날씨

| 23(수) | 24(목) | 25(금) | 26(토) | 27(일) | 28(월) | 29(화) |
|-------|-------|-------|-------|-------|-------|-------|
| 6/10 | 3/10 | 3/7 | 1/7 | 0/4 | 0/7 | 1/7 |

"司試 폐지를" 전남대 로스쿨생 130km 릴레이 도보 행진

광주고법앞서 호남권 출정식

전북대까지 1명씩 이어 행진

21일 전남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사법시험 폐지'를 촉구하며 '릴레이 도보 대장정'에 나섰다.

전남대 로스쿨 학생 14명은 이날 오전 9시 광주고법 앞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로스쿨 릴레이 도보 대장정' 출정식을 연 뒤 호남권 릴레이를 시작했다.

이들은 행진에 앞서 "법무부는 여전히 변호사 시험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전남대의 출정식을 시작으로 영호남의 원우들과 충청의 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게 될 것이고, 사법개혁을 위해 하나가 된 우리의 의지와 마음이 과전(정부과전청사)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학생 4명은 광주고법을 출발해 전남대를 거쳐 광주지법 담양지원까지 릴레이로 행진했다. 학생들은 당초 광주고법에서 출발, 일부 구간을 단체로 행진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의 제지에 무산됐다.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 '집시법상 신고하지 않은 정치적 목적의 단체 행동은 불법 집회로 규정하겠다'라는 경찰의 방침 때문이다.

이들은 22일에는 백양사역까지 릴레이 행진을 펼치고, 이어 태인터미널을 지나 전북대 로스쿨까지 130km를 걸으며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 철회'와 '사법 개혁'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무부가



21일 오전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고법앞에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사법 개혁과 사법시험 폐지 유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한 뒤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23일까지 이 사태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를 결행할 것"이라며 "현재 입학정원 90%가

남은 응시자 1886명이 변호사 시험 등록 취소 위압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공고·지방대 출신... '강한 검사' 정평

전남대 출신 두번째 검사장 된 양부남 광주고검 차장

전남대 법대 출신의 양부남(사법연수원 22기) 수원지검 1차장이 '검찰의 별'이라 불리는 검사장으로 승진,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양 검사장의 이력은 특이하다. 명문고·서울대 법대 출신이 주를 이루는 검찰조직에서 그는 공고(담양공고)·지방대(전남대 법대) 출신이다. 그래서 그의 검사장 승진은 더욱 의미가 깊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광주·전남 출신 사법연수원 22기는 4명이다. 이 중 2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며 "특히 양부남 검사장의 경우 공고와 지방대를 나온 탓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이를 이겨냈다"고 평가했다.

양 검사장은 전남대 출신으로는 두번째 검사장이다. 1981년 검사장에 올라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김양근 변호사에 이어 34년 만이다. 전남대 법대는 큰 경사라며 반기고 있다. 전남대 법대 관계자는 "지역 명문인 전남대는 수많은 검사를 배출했지만, 검사장에 오른 이는 김양근 변호사에 이어 양부남 검사 뿐이다"며 "이를 계기로 많은 후배들이 양 검사장의 뒤를 잇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검사장은 독한 검사다. 강직하고 엄정하다. 전혀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

특히 '공직자 킬러'로 알려져 있다. 검찰 일선에서 조폭과 마약사범, 공직자 비리 수사 등에 특유의 소신과 배짱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려 강력·특수수 배태량 검사로 정평이 나왔다.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리를 적발했다. 고향인 전남을 '친환경 1번지'로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영터리로 인증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그는 당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 사범을 최우선적으로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양 검사장은 검찰 내 손꼽히는 '특수통'이다. 거물 범조브로커 '윤상림'의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 방위산업체 비리 의혹 수사를 맡았고,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 담당 검사였다.

또 100명이 넘는 인명을 앗아간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의 대검 수사팀에 파견돼 지하철공사의 녹취록 조작 등 사건 은폐와 전동차 등 기자재 납품 비리의혹을 파헤치기도 했다.

양 검사장은 이 같은 탁월한 업무추진 능력과 괄목할만한 수사성과를 거둔 공로로 지난 2013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한민국 수산물수출 국가통합브랜드
K·FISH

K·FISH
K O R E A N S E A F O O D

글로벌 수산강국 K·FISH가 함께합니다

우리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이 인증하고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국가통합브랜드가 출범했습니다.

1차년도(15)사업은 중국, 미국, 일본, 홍콩, EU를 대상으로 상표권 출원, 등록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 10월 ~ 2016년 10월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우리수산물 수출업체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참여문의 : 한국수산물 소비자포럼 02-589-4623)